하이(Hi) 틴 Teen 공부합시다

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됐다는데

# 미국 사는 삼촌도 한국 대선 투표할 수 있죠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도 국내 각종 선거에 투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국민은 누구이고, 어떤 방식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시카고에 사는 교민, 해외주재원, 유학생 등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했다. 지난해 8월 시카고에서 열린 제 11회 한인축제 모습. /연합뉴스

**— 재외국민은 누구를 말합니까.**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 해당 국가에 사는 영주권자와 해외주재원·유학생 등을 말하며 외국에 3~5년 정도씩 근무하지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외교관도 이 범주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중 투표권자는 얼마나 됩니까.**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국민 664만명 중 영주권자는 171만명, 해외주재원과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는 115만명(2005년 기준)입니다. 둘을 합하면 286만명입니다. 이 중 선거권을 갖는 19세 이상 인구의 숫자는 분명하지 않지만 국내의 경우 인구 대비 73.5%가 유권자인데 이에 대입하면 대략 21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는 어떻게 합니까.**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 주소가 아예 없어집니다. 대통령선거에선 거주지가 문제되지 않지만 지역구 대표를 뽑는 총선에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와 한나라당은 대선과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에서만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에까지 확대하려면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최종 거주지를 선거구로 하거나 호적에 등재된 주소를 선거구로 원용할 수 있으며 영국의 사례처럼 본인이 직접 주소지를 별도로 등록해 선거구로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어떤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재외공관에 나가서 투표하는 방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부재자투표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편·인터넷을 이용하려면 비밀선거의 원칙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와 본인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필요합니다.

**—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즉 피선거권도 생기나요.**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일정기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인정한 선거법에 대해서도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국에 거주하는 서울시의원, 일본에 거주하는 광주시의원도 생길 수 있게 됐습니다.

**— 외국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나요.**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진국은 대체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6월 현재 전세계 92개국이 재외거주 자국민을 위해 해외부재자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2002년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가입국 중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는 나라는 한국·터키·멕시코·헝가리 등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해외 단기 체류자나 영주권자는 물론 이중국적자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경우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역사 또한 짧지 않습니다. 미국은 1955년부터 '연방투표보조법'에 의해 군인과 선원·해외근무공무원 및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게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왔습니다. 이후 1975년 '해외시민투표법'에 의거, 해외국민 모두에게 연방선거 부재자 투표를 인정했습니다. 프랑스는 1945년 국외 거주 군인과 공무원이 대리투표 형식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뒤 1975년에는 의회선거, 이듬해인 1976년에는 대통령선거까지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영국은 총선거와 유럽의회선거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투표권 부여 대상이 다소 탄력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점 입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비교적 최근인 2005년 5월부터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한정해 국외 부재자 투표를 했고 이탈리아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제를 처음 적용했습니다.

**— 돈(비용)이 많이 들텐데요.**

▲국회 권영길 의원실(민주노동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07년 대통령선거에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경우 투표용지 발송·회송과 선거관리비를 포함, 총 374억2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거권자를 약 276만명으로 보고, 그 가운데 부재자 신고자가 166만명, 실제 투표를 한 사람이 159만명가량 될 것이라고 가정한 수치입니다. 국내 거주자의 1인당 선거비용보다 3~4배 많이 든다고 보면 됩니다.

## 선거비용 374억 예상 국내보다 3~4배 더 들어

## 출마도 가능…법 고치면 외국거주 의원 생길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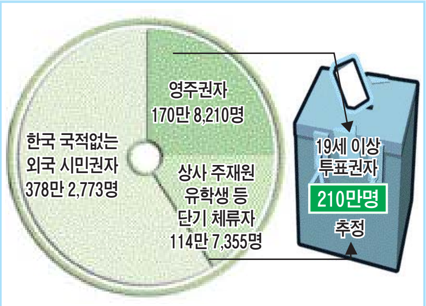
**— 이번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도 적용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는 현행 선거법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12월 10여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모의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최소 선거전 6개월까지'를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대체입법이 늦어지면 올해나 내년 선거에 적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선거관리를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고 투표소 설치, 신분확인 절차, 투표 방식, 선거운동방법,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개정안에 담아야 합니다. 또 범여권은 단기 체류자에게만 우선 투표권을, 야권은 전면 재외국민 투표권 허용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국회 입법이 늦어질 우려가 큽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체 재외 동포 투표권자(추정)




■ 재외동포 지역별 분포

(2005년기준, 자료:외교부)

| 구분 | 인원 |
|---|---|
| **아 시 아** | |
| 시민권자 | 2,470,000명 |
| 영주권자 | 550,000명 |
| 단기체류자 | 560,000명 |
| 합계 | 3,580,000명 |
| **미국 등** | |
| 시민권자 | 780,000명 |
| 영주권자 | 1,130,000명 |
| 단기체류자 | 480,000명 |
| 합계 | 2,390,000명 |
| **유 럽** | |
| 시민권자 | 530,000명 |
| 영주권자 | 20,000명 |
| 단기체류자 | 100,000명 |
| 합계 | 650,000명 |

하이 Hi 틴 공부합시다

재외국민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왜 8년만에 뒤집혔나

## 인터넷 발달·경제력 신장 해외 부재자 투표 쉬워져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줄 것이냐는 문제는 지난 1960년대 이래 논란거리였다. 국내에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에게 부재자투표나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헌재)는 그러나 1999년 3월 이 사안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로부터 8년여가 지난달 28일 헌재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로 "사실상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헌재는 그 이유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경제력 신장 등 10여 가지를 들었다.

헌재는 1999년 당시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도 한국 국민인데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줄 경우 이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남한의 대선에 개입하게 될 위험성이 헌법상 기본권보다 우선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에 북한주민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모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터넷 보급이 시작 단계이던 8년 전에는 전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국민에 대한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제대로 알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인터넷의 대중화로 정보 접근이 쉬워지고, 인터넷 투표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기술상 어려움은 이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납세와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왜 선거권을 주느냐는 1999년 반대 논리에 대해 헌재는 이번에 "우리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납세나 국방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예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재외국민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병역의무와 무관한 여자들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또 1999년에는 선거의 공공성 확보와 실무상 어려움 등을 내세워 권리 제한은 합당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즉 해외거주 국민의 부재자투표를 하려면 선거기간을 연장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선거비용 증가 등 국가적 부담이 가중되고 해외는 공정선거 감시체제가 미약해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번에 헌재는 "선거비용 증가 및 국가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우리 경제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고, 비용 부담 우려만으로 민주국가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판례변화

| 종전 판례 | 쟁점 | 변경 내용 |
|---|---|---|
| 조총련계 등의 선거권 행사 우려 | 북한주민 및 조총련계 재일 동포 | 여권 등으로 구분해 선거권 행사 제한 가능 |
| 공정성 확보 불가능 | 선거의 공정성 확보 여부 | 선거운동방법 제한, 투표자 신분 확인방법 도입, 선거운동비용 사전·사후관리로 가능 |
| 선거권은 납세·병역의무와 결부 | 납세·국방의무 불이행자의 선거권 행사 제한 문제 | 기본권 행사는 납세·국방 의무 이행의 반대급부 아님 |
| 기술적으로 불가능 | 기술적인 장애 문제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으로 극복 가능 |
| 부재자투표 위한 선거기간 연장 및 선거비용 증가 우려 | 선거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문제 | 우리 경제력 감당 가능, 비용 부담 이유로 선거권 제한은 부당 |
| 국내 거주민들과 근본적 차이, 차별은 합리적 | 자진출두 등 스스로 투표권 행사 장애 초래 여부 | 투표권 제한은 국외 거주·이전 및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


**대인부동산컨설팅**
☎ 011-625-0510
(쌍촌동 한국병원 옆)
식당, 일식, 횟집, 레스토카페, 고기전문점 적합
· 1층 50평 임대
· 1층 30평 임대
· 봉선동 한국·쌍용아파트 정문앞
학원임대 (1층 25평 봉선동 학원최적지)
· 봉선동 최고요지 (쌍용·한국아파트 정문앞)
· 최고의 주거지역
· 초·중·고 인접
학원 임대
· 봉선동 쌍용·한국아파트 입구
· 대로변 사거리코너
· 5층 103평 보1억 월185만
· 최고 인테리어 시설 비품 포함
토지매도
· 광산구 산정동 하남택지지구뒷편 – 답750평 평당75만원(자연녹지) 8m도로접 6차선계획도로접
· 수완택지지구 D블럭 근린생활지역 – 대70평 평당 650만
상가건물매매
· 봉선동 쌍용아파트 정문앞 – 대지 140평, 건평 200평, 매매가 11억5천(융자4억)신축건물
모텔매매
· 여수시 화동 바닷가앞 – 대지370평 건평 560평 객실42 융자15억 매매가 25억 월매출 4천만 이상

**금보부동산컨설팅**
☎ (代)261-8949 핸 011-602-2233
(산수동 543-51(두암타운입구 삼거리)
싼땅매매
·북구 문흥동 주택지 나대지 약54평 평당 120만원
·남구 봉선동 주택지 나대지 약66평 당180만원
·북구 두암동 나대지 약40평 당150만원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공장용지 약1,000평 당18만원(2차선도로접)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관리지역 월 4차선접 약3000평 평당22만원(공장용지, 식당, 가든최적지)
·북구 망월동(첨옥동)동사무소건너편 주거지역 160평/398평(전원주택, 식당용지적합)매매가 평당60만원
·담양군, 읍 삼만리 국도접 도립대학부근 424평 평당35만원
·광산구 옥동(평동소재지) 대지 180평당 190만원(상가, 식당, 투룸부지 적합)
고시원매매
·북구 중흥동 전대후문쪽 신축 건물고시원 대지68평 건평110평 실32개 시설완비 수익률 월800만원수입 매매가 5억8,000만원
건물매매
·서구 농성동 대로변 대지 155평 건평 345평 세보증금 8,000만원에 월 740만원 융자5억포함 매매가 10억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대지 약69평 건평300평 세보증금 9,000만원에 월556만원 융자4억4,000만원포함 매매가 8억
·북구 일곡동 대지114평 건평468평(지하1층 지상5층)세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620만원
·북구 중흥동 중흥정해식장건너편 대로변 대지169평 건평370평(지하1층, 지상4층)1층 세보증금 6000만원에 월130만원 2,3층 목욕탕골실 4층 주택공실 매매가 7억2,000만원(융자6억41,000만원 포함)
·서구 유촌동 버들마을 內 대지160평 건평670평 (지하1층 지상5층)세보증금 3억1,000만원 월1800만원 매매가 23억(융자10억포함)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앞 대지86평 건평217평 세보증금 1억1,500만원에 월320만원 매매가15억7,000만원(융자2억 5000만원포함)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앞 대81평 건평252평 (지하1층지상6층) 세보증금2억7,000만원에 월710만 매매가 11억(융자2억3,000만 포함)
·일곡동 대지114평 건평468평 매매가 11억
주유소매매
·광산구 소촌동 총대지 면적 780평 건평484평 (주유소, 전물2동포함)세보증금 1억3,450만원 월702만원 매매가 21억
·북구 오치동 대지445평 건평210평 주유기9대 세차기 현성업중 매매가 15억
※그외 원룸, 고시원, 건물, 토지 다량보유 상담요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A+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062)973-9174, 016-757-8800
매매상담환영-사업목적부지·건물·자산투자부지 등 매입목적을 최적달성하고 적정보유기간은 예측하는 매매상담
거래전문성-최상의 경제효과와 신속성, 법률적 안전성, 사회적 비밀보호를 지키는 거래
첨단지구상업용지 평당가격:200만원~1200만원 면적:240 270 510 1100 3000 100 111 115 180 200 250 등
상무지구 260평 당450만 200평 당1200만
수완택지개발지구 이주자택지:78평 당400만 외 다수 협의양도인택지:86평 당190만 등 생활대책용지 상업용지 등
광주지역 녹지 사업부지 충전소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골프연습장부지기지 1만, 1만3천평 물류공장부지 2900 2500 4900평 수완동 4차선접 1200평 1800평 삼거동 2차선접 2500평
골프연습장:15억 수익성높음
전용가능한사업부지
자연녹지 : 3800평-대형차진입가 6차선접 평당 90만
생산녹지 : 2800평-평동공단인근 평당 65만
우량임야 25만평:광주25분 연수원복지시설골프장 50만평:광주25분 골프장최적 15만평:광주40분 영암18만평 보성9만평 화순2만6천평
물류창고부지 5000평:담양 고속도로 7분 7000평:담양 고속도로 10분
공 장 장성 3000평 하남공단 980평
모 집
실전경험 풍부한 실장님과 적극적인 남·여가족을 모십니다.
• 광주·장성권 토지 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1-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현대공인중개사**
☎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 급히 구합니다 ▶
【건 물】
◉병원건물이나 병원으로 임대가 가능한 건물 현금15억
◉임대 소득이 높은 상가 건물
【토 지】
◉전원주택부지-광주시내나 장성, 담양, 화순
◉광산구 관리지역-삼도, 본량
◉평동공단 2차단지 부근 토지
◉투자 가치가 확실한 토지
◀ 급히 팝니다 ▶
◉하남 2지구 택지 준주거용지 170평 9억5천만원, 170평 9억원, 최고의 상권
◉학원, 정비공장, 식당, 창고부지 일곡동, 자연녹지, 424평, 25m도로에 접, 평당200만원
◉미륵동 김대중컨벤션앞 생산녹지 908평, 평당180만원
◉매월동 유통단지 택지 농산물 공판장앞 261평, 평당600만원
◉카센타, 식당부지 광산구 소촌동, 영광간 35m도로변, 140평, 평당280평
◉모텔:첨단, 대지 198평 건평600평 객실30개 대출10억 매도가 25억
◉물류창고부지 자연녹지, 비아 인터체인지 인근, 2400평 평당75만원(분할도가능)
◉창고 공장부지 210평, 평당 110만원 벽진동 주거지역
◉공장 창고부지(투자도가함) 관리지역, 광산구 양산동 1600평 대형차량 진입가 평당14만원
◉원룸부지:금호동, 대지 237평, 평당 135만원
◉광송 간 도로변 상가부지:61평 평당 750만원

**법원경매 전문회사**
-늘 앞서가는 사람들- (주)옥선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옆)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 옥선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분석, 명도, 유치권 내역서 및 성립여부, 낙찰예상가 분석 예고등기,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가장임차인 등 차별화된 상담을 기다립니다.
▶근린시설/근린상가 상담 대표이사 011-666-8446
▶모텔/원룸 상담 대표이사 011-666-8446
▶상가주택/주택
▶공장
▶임야/농지
▶아파트